

안녕하세요. 이번 작품 발표를 맡은 정경화입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랜딩페이지 소개, 프로젝트 소개, 마무리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2024년 대학교를 졸업한 후 고고학 연구원에서 근무했습니다.

하지만 전공이 저와 잘 맞지 않는다고 느꼈고,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 일본에서 1년간 워킹홀리데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시공간의 제약 없이 일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겼고, 제가 좋아하는 미술과 디자인을 결합한 웹퍼블리셔라는 직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직접 사용하던 앱의 불편함을 개선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서, UX/UI 분야를 본격적으로 배우기 위해 그린컴퓨터아카데미에서 과정을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작품인 개인 랜딩페이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눈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베이지 톤을 배경으로 사용하고, 강조색으로 따뜻한 갈색을 선택했습니다.

소제목은 세리프 폰트로 고급스러움을 주고, 본문은 가독성이 좋은 산세리프 폰트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정적인 화면에만 집중하면 사용자 흥미가 떨어질 수 있어, 버튼 이벤트나 로고 회전 애니메이션, 이미지 호버 시 흑백에서 컬러로 변하는 효과 등을 넣어 사용자 경험을 개선했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소개입니다.

저는 총 5개의 반응형 웹사이트를 제작했습니다.

고궁박물관, 글라스락, 버거킹, 삼다수, SPC 홈페이지입니다.

먼저 고궁박물관 사이트입니다.

조선시대 왕실 유물과 전시 정보를 소개하는 사이트로, 정보 탐색이 쉽고 감각적인 디자인이 인상적이어서 제작했습니다.

메뉴에 호버하면 화살표 아이콘이 나타나고, 스와이퍼를 이용해 자연스러운 슬라이드를 구현했습니다.

오른쪽 상단의 햄버거 메뉴는 클릭 시 화면이 펼쳐지고 다시 누르면 닫히도록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두 번째는 글라스락 홈페이지입니다.

기본적인 웹퍼블리싱 기능을 익히기 위해 작업한 프로젝트입니다.

메인 이미지는 자동으로 전환되며, 스와이퍼 네비게이션을 클릭해 원하는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햄버거 메뉴는 클릭하면 X 모양으로 바뀌고 다시 누르면 닫히도록 구현했습니다.

Innovation 페이지는 풀페이지 스크롤을 적용해 부드러운 전환을 만들었습니다.

심플리 스크롤 기능을 활용해 로고들이 자동으로 움직이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는 버거킹 반응형 웹사이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여서 즐겁게 작업한 프로젝트입니다.

네비게이션에 마우스를 올리면 서브메뉴가 자연스럽게 펼쳐지고, 메인 배너는 자동 슬라이드로 구성했습니다.

이미지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커서가 변하도록 설정했고, 전체 구조는 그리드를 이용해 반응형으로 제작했습니다.

화면이 작아지면 햄버거 아이콘이 나타나며 클릭 시 메뉴가 열리고 닫히도록 구현했습니다.

또한, 서브 메뉴 클릭 시 숨겨뒀던 메뉴가 나타나도록 제작했습니다.

네 번째는 삼다수 홈페이지입니다.

상단 메뉴를 누르면 전체 메뉴가 펼쳐지고, 서브메뉴에 마우스를 올리면 밑줄이 나타나도록 구현했습니다.

모든 섹션은 풀페이지로 구성해 부드러운 스크롤이 가능하며, 삼다수 물통 이미지는 픽시드로 고정해 스크롤 시 함께 움직이는 느낌을 줬습니다.

또 화면 배경색에 따라 로고와 네비게이션 색상이 jQuery로 자연스럽게 바뀌도록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은 SPC 홈페이지입니다.

이미지 배치가 다양해 그리드 레이아웃을 적극적으로 사용한 프로젝트입니다.

메인 메뉴에 호버하면 전체 메뉴가 나타나고, 서브 메뉴에 호버하면 별도의 배경 효과가 적용됩니다.

메인 이미지는 자동 슬라이드가 되도록 설정했고, 메뉴 네비게이션은 스크롤 시 고정되도록 구현했습니다.

이미지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되고, 텍스트를 클릭하면 이미지가 변경되는 기능 등을 자바스크립트로 추가했습니다.

헤리티지 서브페이지도 동일하게 그리드 기반으로 구성했습니다.

이 과정 동안 다양한 랜딩페이지와 반응형 웹사이트를 직접 제작하면서 실무와 비슷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디자인과 사용자 경험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스스로 발전하고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디자인 역량을 발전시켜, 사용자에게 심미적이고 편리한 UI를 제공하는 웹퍼블리셔이자 웹디자이너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